

### 1. 이사회 공동체에 대한 나의 생각

최근 세계 경제의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많은 나라들이 양적완화를 통해서 경제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다. 상황이 더욱 안 좋은 그리스 같은 나라들은 디폴트상태에 이르러 국가가 파산하는 상태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세계경제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뭉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아시아 공동체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발생하고 있는 한중일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분쟁들은 한국과 중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하면서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역사적 갈등이 분쟁의 주요 내용이 되는데 경제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경제성장을 위해서 덮어 두고 있었지만 여유가 생기면서 이 문제가 불거져 왔다. 이러한 분쟁의 원인들을 대화를 통해서 하루 빨리 해결해야 아시아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아시아공동체의 형성에만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 공동체의 유지에도 관련이 되어 있다. 공동체 내에서 갈등이 발생한다면 공동체의 내부적인 결속이 흐트러져 공동체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갈등이 지속되면 공동체가 해체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갈등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은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서로 간에 신뢰를 쌓고 아시아공동체 안에서 공유하는 새로운 이념을 만들어 냄으로써 이루어 질 수 있다. 여기서 아시아 공동체 안에서 공유하는 이념이 매우 중요한데 공동체 구성원들의 이해관계는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를 통해서 공동체를 구성했을 때에는 이해관계의 변화에 의해 공동체의 위기가 빠르게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공동체 구성원들 간에 공유하는 이념이 존재하고 이것을 통해서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다면 이해관계가 변화하더라도 공동체를 오래도록 유지 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공동체안에서 공유될 새로운 이념을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은 아시아 구성국가들간의 대화와 이해를 통해서 만들어 내야 한다. 현재 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다. 이 때문에 아시아공동체가 형성된다면 필연적으로 공동체 내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가장 강력하게 되는데 다른 공동체 구성원들 중에서 이러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나라가 있어야 한다. 그 이유는 중국 한 국가의 영향력이 너무 강해지고 이를 견제할 국가가 없다면 아시아공동체가 중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국인의 입장에서 아시아 공동체 안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한국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한국이 경제적으로 더 성장해야 한다. 한국의 경제 시스템은 현재 한계상황에 도달하고 있다. 이대로 시간이 흐를 경우에는 일본이 겪었던 장기불황을 한국이 겪게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을 탈피하고 경제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의 경제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아시아 국가와의 교류를 통해서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방안들을 통해 한국이 아시아공동체 안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아시아공동체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젊은이들이 많은 친구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전문을 넓히고 열려있는 생각을 가지며 많은 지식을 학습함으로써 아시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2. 아시아 공동체론을 들은 소감

이번에 아시아 공동체론 수업을 들으면서 아시아가 하나로 뭉치는 것의 중요성과 아시아 공동체가 성립되기 위해서 먼저 해결해야 하는 숙제 등에 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여러 강사 분들의 강연을 들으면서 한국과 아시아 각국 간의 관계에 대해

나의 관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들을 수 있었고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내가 평소에 관심이 있던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전문가의 강연을 통해 배울 수 있어서 나의 견문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었다. 많은 강사 분들의 강연을 들을 수 있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강연은 아베 마코토 선생님의 강연과 10월 28일에 있었던 국제학술회의, 그리고 원아시아 재단의 사토 요우지 이사장님의 강연이다. 아베 마코토 선생님의 강연은 평소에 흥미를 가지고 있었던 한국과 일본의 경제적 교류에 관한 내용 이어서 흥미로웠다. 아베 마코토 선생님의 강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한일간의 경제적 교류에 관한 내용이었었는데 한일간에 정치적인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인 교류는 끈이지 않고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그리고 국제학술회의는 지금까지 그러한 세미나에 참여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일본과 한국의 유명한 학자 분들이나 관료 분들이 참여하신 세미나여서 더욱 기억에 많이 남았고 평소에 볼 수 없는 유명하신 분들의 한일관계에 대한 문제점이나 앞으로 발전해야 할 방향 등 많은 의견을 듣고 학생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셨던 점에서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규모의 세미나에 참여하는 것은 학교생활하면서 한번 있을까 말까 한데 다른 수업시간과 겹쳐서 모든 강연을 들을 수 없었다는 점이 매우 아쉽다. 이제 졸업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학교생활을 하면서 이런 세미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기회가 된다면 꼭 참여해 보고 싶다. 사토 요우지 이사장님의 강연에서는 인생론에 대해서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강연을 듣고 나서 아무 목적의식 없이 시키는 대로 살아왔던 이제까지의 생활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반성할 수 있었다. 또한 앞으로는 목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이제 4학년이어서 취업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시기이지만 이제까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고 허둥대고 있었는데 이 강연을 듣고 나서는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고 목표를 설정하여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주대에 일본정책연구센터가 새로 생긴다고 하는데 이곳에서 한국과 일본 간에 상호이해를 도와 경색되어 있는 한일관계를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며 좋겠다. 아시아 공동체론은 아주대뿐만 아니라 한국의 많은 대학들과 세계의 여러 대학들에서 개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좋은 수업을 아주대에서 개설해 주신 원아시아재단 분들과 학교 분들, 그리고 이번 아시아 공동체론 수업을 준비해주신 박성빈 교수님, 이왕희 교수님, 김종식 교수님과 강연을 해주신 많은 강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아시아 공동체론이 오랫동안 개설되어 많은 학생들이 나와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